

이상돈의 '바른 소리'



갈 길을 잃은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의 앞날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게 됐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을 아예 무시하고 있고, 야권에 우호적인 정치평론기도 새정치연합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한다. 문재인 대표에 대해 사퇴하라는 말이 반년 넘게 당내에서 나오고 있으니 그런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정당으로서 모습이 우습게 되어 버렸다. 무엇보다 야당의 기반인 호남에서 문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은 새정치연합의 문제가 심상치 않음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모를 수 없는 문재인 대표가 옛것에 광주를 찾아서 나름대로의 해법을 내어 놓았다. 문 대표는 '문재인·안철수·박원순'으로 구성된 희망스 크립을 구성해서 당 대표 권한을 공유하는 공동지도체제를 제안했다. 당 대표 권한을 세 사람이 공유하면서 내년 총선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문 대표는 안철수의 힘이 제시한 혁신안이 '백번 옳은 이야기'라고 동감을 표명했으며, '호남의 정치개혁도 결국 인적쇄신'이라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날 정당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천정배 의원에 대해 통합을

제안했다. 하지만 문 대표의 구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문·안·박 공동체제'는 현재의 최고위원회를 대체한다는 말인데, 당장 몇몇 최고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인 박원순 시장은 법적으로 병상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안 의원은 아직은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과연 참여할지는 의문이다. 문 대표는 안 의원이 제시한 혁신안이 '백번 옳다'고 했는데, 사실 안 의원은 알맹이 있는 혁신안을 제시한 적이 없고 단지 김상곤 혁신안이 잘못됐다고 말할 뿐이다. 안 의원이 '문·안·박 연대'에 참여하면 문 대표는 김상곤 혁신위원을 백지화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곧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문 대표는 '문·안·박 연대'의 근거로서 세 사람의 지지도를 합치면 새누리당 지지도보다 높다고 했다. 2012년 한 해 동안 안철수·문재인 두 사람의 지지도를 합치면 박근혜의 지지도보다 항상 높았지만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패배한 데서 보듯이 지지도 단순 합산은 큰 의미가 없다. 호남에서의 민심 이반이 호남 현역의원

들의 기득권 수호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하는 본질론은 그대로 남아 있는 셈이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솔직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2012년 두 차례 선거는 친노 지도부가 주도해서 치렀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의 주류 세력의 패배였으며, 통진당과의 연대로 치른 선거였기에 진보집권 플랜의 실패였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여기에 대선 선 그래도 친노가 주도했기에 그만큼 선전한 것이 아니냐고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호남 유권자의 선택적 지지가 없었으면 그러한 선거 결과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안철수 의원이 야권 쪽에 섰다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총선에서 안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고 대선에서는 양보했지만 안 의원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대체로 2번을 찍었다. 안 의원이 정당을 창당하려 할 때 그 지지도는 민주당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안 의원이 한때 가졌던 정치적 자신은 공동대표가 되어 치른 지방선거와 재보선 과정을 통해 많이 소진되어 버렸다. 2012년 대선에서 문 대표를 지지했을 통진당 지지층이 현재의 해산 판결 후에 통진당과 선을 그은 새정치연합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변화다. 2012년 선거에서 야당이 얻었던 48%에서 호남 유권자, 안철수 지지층, 그리고 통진당 지지층을 빼면 대체로 새정치연합의 현재의 지지도가 나오게 된다.

새정치연합이 아직도 '거리 민주주의'에 매달리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세월호 사건 후 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고 거리 투쟁에 나선 것이라든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과격한 민중집회에 관해서 그것을 주도한 민노총을 향해 쓴 소리 한마디 못하는 것이 그러하다.

오늘날 새정치연합이 필요로 하는 호남 유권자와 20~30대 유권자는 박근혜 정부의 극우 편향을 혐오하지만 동시에 과격한 운동권 행태도 좋아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홍대대 명예교수>

종교칼럼

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김영철 남동 5·18기념성당 주임신부

자 자매님의 "김영철 신부님 오셨다" 라는 그 한마디에 다들 2층에서 뛰어내려왔 습니다. 아! 그런데 모두 아는 얼굴들, 너 무나도 반가운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한눈에 나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한 목소리에 나를 알아보았다고 하는 게 맞 는 표현일 겁니다.

서로 나를 만지려 들고 서로 먼저 말을 걸러 하며 즐거운 소동, 행복한 소동이 일 어났습니다. 그들은 시각장애에입니다. 16년 만에 그들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당시 나보다 젊었던 친구는 이제 나이가 들어 중년의 모습이 됐고, 나이가 좀 들었던 사람들은 장년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 니다.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의 그 정이 그대로 남아있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난 그들에게 한번 찾아 오마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눌 작정입니다.

내가 그들과 인연을 맺은 것은 광주가톨릭대학교 부제(사제를 돕는 성직자) 때였습니다. 성직자로서 당시 맹인선교회(현재는 시각장애인선교회) 레지오원(기 도 단체)의 순회와 강복(축복)을 일주일에 한번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인연은 사제가 돼서도 1년간 계속됐습니다. 봉사자들과 몇몇 시설에서 오는 시각장애인들이 늘 즐겁고 기쁘게 생활했습니다. 장애의 고통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늘 밝게 웃으며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벽에 '공' 하고 부딪칠 때 "이 양반이 눈에 보이는 게 없아보네. 똑바로 가자" 하면 "아, 내가 봉사자예요"하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냈습니 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분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장애를 원망하기보다 주어진 삶에 순응하며 받아들이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들과 함께하며 위로하는 사람들의 자비로운 마음의 눈을 바라보며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들이 육신의 눈이 멀어 앞은 보지 못하지만, 그들은 평소 소중함을 몰랐다가 어떤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 비록 작으나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대한 것이라도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세상은 내 안 들어옵니다. 달과 수많은 별들이, 감사 하면서 순수하게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

끊임없이 내게 선물로 주어줍니다. 그런 데도 정작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어려운 가운데 감사의 정으로 가진 것을 기꺼이 내놓은 신자와 오랜 세월 만나지 못해 잊을 만도 한데 그렇게 기쁘게 맞아주고 환대해준 시각장애인 친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감사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는 삶이 무엇인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 받아들이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고 다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밝은 빛에 마음을 열라, 그러면 영혼이 살 것이다.'

인간은 저마다 보는 것을 달아간다고 했습니다. 선한 것을 보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고 나쁜 것을 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눈'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 우리를 품어 있게 만드는 것과 억압하는 것, 우리를 발전시키는 것과 파괴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누구든 자신을 보거나 만질 때

나는 아침에 눈뜨면 밝은 태양 빛에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마태 5:8)

기고

안전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



최명기 동신대 토목공학과 교수

생,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같은 날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는 건조 중인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근로자 12명이 다쳤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8월에도 선박 화재로 말미암아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와 언론, 자정 안전관련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안전시스템 강화'를 부르짖는다.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정부부처 개편 등 컨트롤타워 일원화와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안전시스템 개선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반복적으로, 지금까지도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시스템 개선을 통해 과연 사고가 전혀 없는 무재해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오랜 현장경험을 가진 안전관련 전문가들은 말한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수준의 가장 낮은 단계인 '최소한한 법 개정과 제도개편'은 75%, 설비구축 등 기술적 관리감독 강화는 10%의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지만, 나머지 15%는 안전관련 제도 등을 아무리

바뀌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주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규제 방식에서 자율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나머지 15%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자율방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의식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나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식이 필요하다. 안전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다. 나보다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나와 상대방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고 당사자들은 서로 자기잘못은 전혀 없고 상대방이 전적인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제 3자나 목격자들은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이유로 '양쪽이 서로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보다 상대방이 잘못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실

속 있다고 해도 내가 조금만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했다면 사고 자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나왔을때, 반대편의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진입한다고 해도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천천히 움직인다면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최근 법원에서 살인확정을 선고받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자신의 생명보다는 세월호에 탑승한 수많은 학생들의 미래와 청춘의 꿈을 조금만 배려했다면, 과연 혼자서 배를 탈출할 수가 있었을까?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는 우리국민 모두가 나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식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나와 우리가족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다. 바로 오늘 지금부터 우리 모두는 나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과 존중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하겠다. 또한 우리들의 일상 생활 곳곳에서 이러한 의식함양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이 확산되고 실천되기를 제안해 본다.

社說

전윤철 비엔날레 이사장의 부적절한 처신

광주비엔날레재단(이하 재단) 전윤철 이사장이 천정배 의원이 창당하는 야권 신당의 추진위원으로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관에는 비영리 기관인 비엔날레 재단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지만 재단의 독립과 자율성 차원에서 도입한 민간 이사장이 특정 정치 집단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그리 좋은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 이사장은 옛것제 천 의원이 주도하는 야권 신당의 창당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목포 출신인 전 이사장은 1966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거래위원회장과 기획예산처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감사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또 역대 4개 정부에서 7차례나 차관급 이상 정부직을 지냈다.

광주시가 그를 비엔날레 민간 이사장으로 영입한 배경에는 이런 그의 화려한 공직생활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아무래도 재단 후원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 이사장의 중양과의 인맥 등이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전 이사장의 '정치 행보'로 인해 재단은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 우선 비엔날레 발전을 위해 재단의 명예이사장인 윤장현 시장과의 긴밀한 협조가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그가 지지한 신당과 달리 윤 시장의 당적은 새정치연합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사소한 일로 비엔날레 발전의 대의를 그르치는 일이야 없겠지만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모름지기 재단 이사장은 '외풍'으로 부터 비엔날레를 지켜내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여야 하는 중요한 자리다. 또한 10여 년째 제정된 재단 후원금을 늘려 재정을 안정시켜야 한다. 취임 후 후원금 유치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그의 정치 참여는 부적절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전 이사장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본인의 직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지역 내 중국 관련 유적 관광객 유치 활용을

중국인들은 유난히 인연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땅이 넓고 사람 또한 많다 보니 일단 동침감을 느끼면 매우 반가워한다고 한다. 이를 감안해 호남권에 산재한 중국 관련 유적을 지역 관광자원과 묶어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알려진 대로 광주·전남은 중국과 가깝고 천혜의 풍광을 지녔음에도 중국인들의 방문은 미미한 수준이다. 서울과 부산·제주에 비해 숙박시설이나 대형 쇼핑센터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볼거리가 부족한 탓이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중국의 인물과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의미 있는 큰 유적이 꽤 분포돼 있다.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중국 관광객의 발길을 모을 수 있는 곳들이다.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해 양국에서 관심이 많은 정용성 선생의 생가도 그 중 하나다. 마침 그동안 생가 소재지 논란을 벌였던 광주 시와 화순군이 상생을 약속한 티어에서 적극 협력한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다.

화순의 주자묘(朱子廟), 조선 수군을 도왔던 명나라 진린(陳璘) 장군의 제사를 지내는 해남 황조별묘(皇朝別廟)와 후손들의 집성촌도 중국인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단편적으로 소개되는 데 그쳤다.

이를 거울삼아 최석호 레저경영연구소장은 최근 해남 토론회에서 지역의 중국 관련 자원을 인물과 종교 등으로 분류하고 중국인이 선호하는 경관을 기형 쇼핑센터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볼거리가 부족한 탓이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중국의 인물과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의미 있는 큰 유적이 꽤 분포돼 있다.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중국 관광객의 발길을 모을 수 있는 곳들이다.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해 양국에서 관심이 많은 정용성 선생의 생가도 그 중 하나다. 마침 그동안 생가 소재지 논란을 벌였던 광주 시와 화순군이 상생을 약속한 티어에서 적극 협력한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다.

無 等 鼓

지난해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뒤부터 우리 국민의 가슴엔 지워지지 않는 멍울이 생겼다. 세월호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스러진 304명을 차마 잊지 못해서다.

상망하는 이는 갖지만, 그들을 잃어 버린 슬픔과 그들을 죽음에서 구해 내지 못한 회한은 노랑나비처럼 '노란 리본'에 담겨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머리칼과 옷에 내려앉은 리본들은 누군가 자신을 보거나 만질 때

지니고 있다. 사고가 난 지 582일이 지난 지금도 어디에선가 노란 리본을 '만나면' 그날의 충격과 슬픔이 떠올라 눈을 감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지금 지구촌에는 우리의 '노란 리본'처럼 수십, 수백만 명의 슬픔과 분노를 담은 또 다른 상징이 태어났다.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의 연쇄 테러로 129명이 숨지고 350여 명이 부상한 직후 소셜미

다이어를 통해 선보인 '에펠탑' 모양의 도안 이 그것이다.

프랑스 출신 그래픽 디자이너 장 폴리앙이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제작한 이 도안은 에펠탑과 원을 결합한 형태로, '파리에 평화라'이라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 간편하게 그릴 수 있고 이해하기도 쉬운 이 상징은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포스터와 셔츠 등에 사용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에펠탑이 테러와 애도의 상징이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유명한 이름만큼이나 전 세계에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홍행기 정치부장redplane@

프랑스 출신 그래픽 디자이너 장 폴리앙이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제작한 이 도안은 에펠탑과 원을 결합한 형태로, '파리에 평화라'이라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 간편하게 그릴 수 있고 이해하기도 쉬운 이 상징은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포스터와 셔츠 등에 사용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에펠탑이 테러와 애도의 상징이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유명한 이름만큼이나 전 세계에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홍행기 정치부장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광고문의 062-227-960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 화 생활 부 2200-661 여 론 매 체 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 고 마케팅 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 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